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64)(5/12/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1 장 세상에서의 온갖 명예를 멸시함, 1-2 절

빌 2:5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7-8 -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 1:14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딤후 6:17 -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 <그리스도> 아들이, 다른 사람들은 존귀하게 대우받고 높임을 받는 반면에, 네 자신은 멸시받고 비천해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네 마음을 들어올려서, 하늘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 부터 멸시를 받더라도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제자> 주님, 우리는 눈이 멀어 있어서, 헛된 것에 의해서 금세 유혹을 당하고 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올바르게 들여다본다면, 나는 어떤 피조물이 내게 해악을 끼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앞에서 그 어떤 불평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께 중대한 범죄를 무수히 일삼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에게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나는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모든 피조물에 의해서 멸시받고 버림받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의 마음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도 없고,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도 없으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도 없습니다.

말씀과 해설: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적인 모습 중의 하나는 낮아짐이다. ‘낮아짐’은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잘 묘사한 말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바울은 당시 초기교회에서 전해내려 오던 ‘그리스도 찬미송’이라는 전승 자료를 빌 2:6-11 에 기록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찬미송’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낮아지신 분이라고 노래한다. 빌 2:8 -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신 주님은 이 땅에 종과 같이 섬기려 오셨다. 막 10:45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낮아지심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으로 나타났다. 요 1:14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울이 인용한 ‘그리스도 찬미송’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낮아지심과 함께 종처럼 낮아지신 것을 함께 노래한다. 빌 2:7-8 -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와 “사람의 모양으로”라는 표현은 주님의 성육신을 나타낸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종처럼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공생애 기간 내내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요 13:14 -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 중심의 낮아지심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빌 2:5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6-11 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 중에 핵심은 낮아짐의 마음이다. 낮아지신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이 낮아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마 11:29 에서 친히 자신의 마음의 겸손을 나타내셨다. 마 11:29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다. 참된 겸손은 마음이 겸손한 것이고, 마음 중심이 겸손할 때 비로소 온전한 행위의 겸손을 실천할 수 있다.

성경은 교만을 마음을 높이는 것으로 표현한다. 딤후 6:17 -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흥미롭게도 아캠퍼스는 ‘마음을 들어 올리라’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기록에 남겼다. 아캠퍼스가 깨달은 ‘마음을 들어올리라’는 메시지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과 낮아지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만함으로 마음을 높이는 부한 자들은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집착하며 의지한다. 부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마음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의 마음은 교만함으로 한 없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모든 관심과 애착은 이 땅에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교만함으로 높아지는데 자신의 시선과 관심과 애착은 이 땅 아래에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의 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애착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아캠퍼스가 ‘마음을 들어올려서’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주의 백성은 겸손함으로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늘의 것에 애착을 가지는 그 마음은 위로 들어올려야 한다.

이런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고난, 막힘과 실패, 억울함, 심지어 멸시와 천대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련을 극복하며 넘어서 수 있게 된다.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바라보신 주님은 공생애 기간 당하신 온갖 종류의 공격과 박해를 이겨 내셨고, 주님의 제자들과 바울 역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봄으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감당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마음과 함께 몸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작정을 하셨기에 삶에서 당하시는 실제적인 다양한 어려움들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순한 어린 양처럼 받아들일 수 있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나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당하는 인생의 갖가지 어려움들, 인격적인 모멸감들,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일들까지 경험하는 상황 속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이 땅에는 예수님, 사도들, 그리고 초기교회 성도들과 같이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억압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들어올리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아시아 지역 선교사님들(캄보디아 김기대, 박훈용, 오만 김데이비드, 몽골 김봉춘, 터기 김홍기)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3. 질병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해결의 역사를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